

## 지방분권 개헌 추진 내년 초가 골든타임

전국 지자체·시민단체 역량 총결집... “지방선거 때 반 분권 세력 심판”

지방정부와 의회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내년 초가지를 ‘개헌 골든타임’으로 잡고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개헌의 1차 관문인 국회를 상대로 공개 질의를 통해 반분권 정치 세력을 가려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로써 분권형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3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23일 조만간 전체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분권형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의서에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물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천명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보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업무 배분의 보충성 원리 명기 등의 전반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의 찬반 입장도 물을 예정이다. 질의서는 국회의원들의 답변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인 분권형 개헌

에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밝혀낼 수 있도록 통계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렛대로 활용해 분권개헌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개헌에 역량을 총결집하고 나섰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개헌 논의가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 구조에만 집중돼 자칫 분권형 개헌 의제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이해타산이 작용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것도 시민단체들이 분권형 개헌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실제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실시 방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은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가진 정치 세력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시민단체를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전국적인 개헌 역량을 모으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을 돌며 주요 권역별로 대규모 국민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지방분권국민회의 주최로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또 지방별로 민·관·언론이 중심이 돼 동별로 1명의 헌법개정국민위원을 선정, 지방분권 개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시민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박명호 공동대표는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가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시정연설을 통해 선거 공약인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를 재천명한 만큼 시민들의 힘이 결집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능 끝 ‘활짝’ 23일 광주시 남구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시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어제 첫 눈

지난해 보다 21일 빨라... 오늘 광주·전남 내륙에 눈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3일 광주에서 첫눈이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발생한 눈 구름이 유입돼 이날 오전 광주에 올해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에 잠깐 내린 첫눈은 지난해 12월14일 내렸던 첫눈보다 21일이 빨라

고, 평년(1981~2010년 평균)인 11월 25일에 비해 2일 일찍 나타났다.  
기상청은 24일 광주와 전남 내륙지역인 담양, 구례, 곡성 등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또 전남 서해안과 북부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 예상 강우량은 5mm미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랄산맥 부근에 위치한 상층 기압능(대기 중 주위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과 북태평양과 베링해에서 발달한 상층 기압능이 정체하고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24일에는 지면의 온도가 낮아져 도로가 결빙될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광주시 북구 광주지방기상청에서 눈이 관측이 됐을 때만 공식적으로 눈이 내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이홍재의 세상만사 ▶ 2면
- 축! 수능탈출... 이벤트 ‘뽕뽕’ ▶ 10면
- KIA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 20면

## 올해도 불수능... 국어·수학 어렵고 영어도 변별력 확보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수험생들의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관련 기사 6,7면>  
수험장에서는 국어·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이하 모평)와 비슷하거나 체감 난도가 약간 높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영어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수능은 영역별로 난도의 높낮이가 달랐지만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변별력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시험장을 나선 수험생들은 예상보다 체감난도가 높았던 탓인지 다소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수험생들은 첫 교시

부터 상대적으로 체감 난도가 높은 문제를 마주하면서 진땀을 뺐다.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에서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일부 문제 유형이 바뀌어 비교적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수학영역은 이과계열 수험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가형’은 지난 9월 모평과 비슷하고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다고 평가됐다. 문과계열 수험생들이 보는 ‘나형’은 9월 모평이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올해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운 감이 있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변별력은 확보했다는 반응이다.

고3 교사들은 1등급 비율이 올해 모평 수준인 8%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헬(Hell·지옥) 영어’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영어 1등급 비율은 5.3%였다.  
광주 송덕고 장광재 진학부장은 “이번 수능에서 국어·수학은 전년도에 비해 조금 어렵게 출제됐지만 영어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며 “영역별로 변별력이 확보된 문제가 출제돼 학생들에 따라 한두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수시전형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 “정시는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영어의 반영 방법을 고려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종형기자 golee@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된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